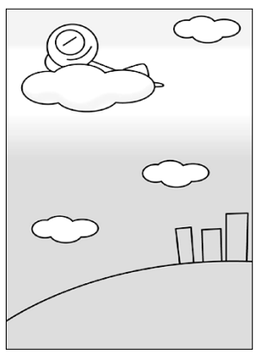
이제열 법사의
경전속의 수행법 <20>

원각경 수행법

<원각경>의 네 번째는 미륵보살장으로 윤회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파헤치고 중생의 근기에는 몇 종류가 있으며 깨달음을 얻은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는 데는 어떠한 방편이 있는지를 설합니다. 시초도 없는 예로부터 중생들이 생사를 거듭하는 이유는 애욕과 무명으로 인해 이장과 사장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문성, 연각성, 보살성 부정성, 외도성이라는 오성의 다섯 가지 차별된 근기가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살은 오직 중생을 불쌍히 여기고 이들을 제도하고자 원력을



방편으로 삼아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이치를 밝힙니다.

여섯 번째는 청정혜보살장으로, 청정혜 보살은 앞의 미륵장에서 설한 오성의 차별됨이 수행에 있어서는 어떠한 경지로 나타나는가를 묻습니다.

이에 대해 부처님은 설혹 번뇌를 끊어 청정한 도리를 성취했어도 그 경지에 머물면 범부의 차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청정하다는 경지마저도 물리쳐 자재는 얻었으나 아직도 깨달아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여기면 보살차원이긴 하나 완전치 못한 보살이라고 설합니다. 여래의 경지는 현상계의 일체 차별된 모습이 그대로 원각의 나툼이나 오성뿐만이 아니라 일체세계를 비추어 보는 것이 허공의 꽃 같음을 아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위덕자재보살장으로 근기의 종류와 수행의 경지에 근거해 원각을 깨달아 들어가는 수행방법은 몇 종류가 있는가 소개됩니다. 이것을 관행이라 하는데, 이곳에서 부처님은 깨달아 들어가는 방편은 무수하나 이들은 모두정관(靜觀), 환관(幻觀), 적관(寂觀)이라는 사마타와 삼마 발제와 선나 세 종류의 관행으로 나눌 수 있음을 밝힙니다.

그러나 경은 이들의 특징과 방법을 설하고는 있지만 막상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막연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사마타를 거울의 그림자, 삼마발제를 나무의 싹이 자람, 선나를 그릇 안의 종소리에 비유해 설명하고 계시나 근기가 박약한 입장에서는 얼른 이해가 가질 않

일체가 허깨비임을 깨닫는 환관법

습니다. 이는 여덟 번째 변음 보살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홉 번째 정제업장보살장에서는 수행자가 없애야할 과제를, 이어 열 번째는 보각보살장에서는 스승을 어떻게 섬기고 따를 것인가를 밝힙니다. 또 열한 번째, 원각 보살장에서는 삼관 수행을 닦는데 있어 안거하는 법이 설해집니다. 마지막 열두 번째 마지막 현선수 보살장에서는 서원을 발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원각경>의 수행은 한마디로 일체를 환(幻), 즉 허깨비로 관찰하는 환관법입니다. 몸과 마음 나아가 일체 세계가 하나의 허깨비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원각에 이르는 길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이 꿈인 줄 안다면 그 사람은 꿈을 깨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는 일체의 경계를 환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여기는 마음마저 환으로 관찰하라는 것이 원각경의 수행 방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유마선원장

조계종 중앙신도회 동안거 수행논강 입재법문

"돈오란 본래 완성된 원래 부처를 보는 것이다." 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은 <돈오입도요문론 강설>을 교재로한 수행논강 입재법문에서 자기 스스로가 부처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돈오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본래 불성 자리를 '보는 것(悟)'에는 마음을 '점차 닦는다(修)' 것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돈오'는 본래 부처인 나를 바로 보는 것

11월 23일 서울 봉은사 법왕루에서 '수행정진, 깨달음에 이르기까지'를 주제로 열린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 재가불자 동안거 수행논강 입재식. 법문에 나선 혜국 스님은 "'닦는다'는 것은 마치 눈먼 장님이 허공을 보기 위해 허공을 만들려고 하는 짓과 같다"며 "돈오는 허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님이 스스로 눈을 떠 허공을 보는 것"이라고 했다.

스님은 "돈오가 곧 선(禪)"이라고 전제한 뒤, "재가불자들은 하루하루 닦아가며 자신을 부처로 만들지 말고 바로 자신이 부처임을 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혜국

> "하루하루 닦아 부처될 생각말고 내가 부처임을 보자"

스님의 입재 법문을 요약한 것이다.

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은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11월23일 서울 봉은사에서 주최한 불기 2548년 재가불자 동안거 수행논강 입제식에서 "단박에 내가 부처라는 것을 보라"고 강조했다.

● 돈오=선=정견

돈오라는 말은 세계종교사에서 불교, 그것도 선종에만 있다. '돈오=선'이라 할 수 있다. 깨침의 본질인 돈오는 닦음의 문제인 점수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 돈오는 본래 완성된 내 모습을 보는 것이다. 닦는 것이 아니다. 원래 부처라는 것을 보면 그만이다.

불교에 사성제(고집멸도)의 교리가 있다. 이는 팔정도를 설명하기 위한 서론이다. 본론은 팔정도다. 그 가운데 핵심은 정견(正見)인데, 그것이 바로 돈오다. 모두가 부처다. 눈만 뜨면 모두를 부처님 도량처럼 볼 수 있다. 문제는 눈을 감고 보질 못한다는 것이다. 가령 허공은 눈감고 있든 뜨고 있든 우리 안팎에 있다. 우리가 허공을 떠나려고 해도 떠날 수 없고, 허공이 나를 버린 바도 없고, 내가 허공을 버린 바가 없이 그대로 여여하다.

다만 눈을 뜨지 않는 중생이 문제다. 탐심 욕심 어리석음 등 삼독심의 구름이 눈을 가려 장님을 만들어 보지 못할 뿐이다. 바로 봐야 한다. 눈만 뜨면 우리는 바로 부처다.

● '돈오'와 '점수', 어떻게 다른가?

'닦는다'는 말은 없는 것을 만들어 나간다는 뜻이다. 부처가 아닌 것을 자꾸 부처로 만들어 나간다는 말이다. 돈오는 자신이 부처라는 것을 믿고, 부처가 아니라는 착각과 망상 번뇌를 벗어나게 한다. 즉, 없는 것을 만들어 나가려고 닦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는 것을 착각해서 못 보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돈오다. 때문에 '보는 것'이기에, '닦는다'는 말은 붙을 수 없다. 그래서 돈오인 거다. 이는 분명한 법이다.

옛날 조사들이 이 같은 돈오 이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수행자들을 주장자로 때리며 경책했다. 이는 닦는 데에서 비롯되는 착각을 깼다. '닦는다'는 것은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 나간다는 말이다. 허공을 만들 수 없듯이 그건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이미 부처인데 눈만 뜨면 허공을 보듯이 번뇌 망상의 구름만 확 벗겨버리면 본래불성을 확인할 수 있다.

● 어떻게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나?

'부처 아닌 게 하나도 없다'는 법문을 믿어야 한다. 그래야 착각에서 벗어나는 순간 깨달음을 얻게 된다. 착각을 일으키는 망상을 걷어내야 한다. 그럴 때마다 '어째서 어째서' 하고 화두를 들어야 한다. 일심으로 의심해야 한다.

우선 몸 안에 번뇌 망상이 있다는 착각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 번뇌 망상은 경계와 대상이 있어야 일어난다. 스스로 만든 생각에 망상이 있지, 만들지 않은 망상은 몸 안에 없다. 몸 안에 있는 생각은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 착각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어떤 때인가. 우리는 생각의 한계에서 벗어나본 적이 없다. 무슨 생각이든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화를 내면 얼굴이 붉어지고, 좋으면 웃는 것처럼 '한 생각'이 우리의 몸과 마

> "화두는 시공을 떠나 생각의 굴레를 벗어나게 해"

음을 움직인다. 이는 일으킨 모든 생각들이 몸과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런데 생각이란 업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화두다. 화두는 시공을 초월해 생각의 굴레를 벗어나게 한다. 달리 말하면,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화두다. 이처럼 화두는 번뇌 망상 등의 착각을 깬다. 화두를 통해 번뇌 망상이 여의게 되는 셈이다. 때문에 돈오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순간, 본래 부처임을 보게 된다. 닦는다는 말이 아니다. 바로 단박에 보는 것이다. 그래서 닦을 것이 없다. 결국 '돈오=평상심=무심=중도'라 말할 수 있다.

정리=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 수행논강 일정 · 장소

3개월간 격주 화요일 서울 봉은사서

혜국 스님을 증명법사로 사부대중 2백여 명이 참가한 이날 조계종 중앙신도회 동안거 수행논강은 시작부터 그 열기가 뜨거웠다. 이번 논강은 최근 대구 동화사 담선법회 등 불교계에서 일고 있는 재가불자 수행열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

논강은 내년 2월 27일까지 3개월 간 성철 스님의 <돈오입도요문론 강설>을 교재로 설우 스님(법인정사 주지)이 진행하며, 2월 26~27일에는 종합수련회도 개최한다.

강의는 격주 화요일(12월 7 · 21일, 1월 4 · 8일, 2월 1 · 15 · 21일) 오후 6시30분 서울 봉은사에서 열린다.

논강 좌장으로는 김진선 강원도지사, 김경남 코엑스 상무이사, 이계진 국회의원, 이준 건국대 명예교수, 박윤흔 한국불교대학원 이사장 등이 맡고있다. (02)733-7277. www.joongsin.or.kr

■ 현장에서 묻고 답하기

'번뇌망상 왜 일어났나' 의심하세요

▲단계를 밟아가며 번뇌 망상을 거둬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번뇌가 곧 화두이지요. 마음속에 번뇌 망상이 일어나는 순간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그때 마다 '어째서 번뇌 망상이 일어났는지' 의심하십시오. 또 다시 번뇌가 올라오면 왜 일어났는지 의심하면 자연스럽게 망상이 화두로 바뀌게 됩니다.

▲좌선을 하다보면 팔과 다리가 저려서 화두를 드는 것이 힘들어요.

-오히려 팔과 다리만 저린 것은 상근기입니다. 온몸이 다 저리지 않는 것이 다행이지요. 선은 꼭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워서도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지요.

다만 누우면 자고 싶고, 걸으면 이것저것 신경 쓰기 십상이니 앉아서 참선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기도처 지연속에 보금자리 자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보살 염불원의 특징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 입니다.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 · 식 · 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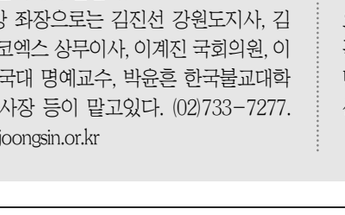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 홀로계신 시아버님, 모시기가 어려우신 분 자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 정 원 : 24명~30명 내외
◆ 시설개요 : 본 건 물 → 방규모(약 7평) 24실(각실 인터폰 설치) 법당, 팔각정자
부대시설 → 제2물리치료실, 목욕탕, 이 · 미용실, 식당, 오락실
◆ 입방비부담 :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 연 락 처 :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바뀝니다.
재수 새로운 운으로 변하면
재수없는 일들과 불화와 액운이 사라지고
새로운 앞길이 열리며
새로운 좋은 일이 있게 되고
새로운 관운, 명예, 재물운이 옵니다.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같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당어리 복당어리 황금당어리 氣가막힌 복이들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